

한국 법령 번역에서 'shall'의 사용에 대한 고찰: 비교 코퍼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유정주(Jeong ju Yoo)
한동대학교

Jeong Ju Yoo (2015), Issues of Using *Shall*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Comparison with Findings from Non-translated UK Statute Corpus.

Modal auxiliary 'shall'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words in legal texts because of ambiguities in its interpretation. Due to the Plain Language Campaign to modernize legal English over the past few decades, 'shall' is now used restrictively to imposing obligations, or prohibited altogether in legislation in the U.K. and many other common law countries. However, it is still the most frequent word to express the illocutionary forces of legislative provisions in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In order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shall' used in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statutes, this study compiles translated Korean statute corpus (TKSC) and non-translated British statute corpus (BSC), each consisting of 1 million words. American statute corpus (ASC) of 4 million words is also used for reference corpus. The comparison of the two corpora shows that TKSC uses 'shall' more excessively than BSC. Keyword analysis also reveals that the frequency of 'shall' in TKSC is much higher than ASC, questioning the current practices of using 'shall' in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Handong University, South Korea)

Keywords: legislative translation, Plain Language Campaign, legislative speech acts, legal 'shall', comparative corpus

1. 서론

서법조동사 'shall'은 영미권 법률 텍스트에서 다양한 발화수반행위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수행표지로,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률 영어에서 거의 성서와 같은 지위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shall’은 그 절대적 사용 빈도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애매성으로 인해 거센 폐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법학계의 난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알기 쉬운 언어쓰기 운동(Plain Language Campaign)’의 주창자들을 중심으로 ‘shall’의 의미를 의무 부과로 한정하거나 아예 폐기하자는 운동이 지난 20년간 활발히 벌어져 왔다. 그 결과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법적 요건(requirements)을 나타내는 수행표지로 ‘shall’보다 ‘must’를 선호하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Williams 2009: 207). 특히 사법(private law) 분야에 비해 정책적인 개입이 용이한 법령의 경우 이러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미 90년대에 ‘알기 쉬운 언어 법제(Plain Language Legislation)’를 공식화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이 법령문에서 ‘shall’을 전면 폐기한 이래, 2000년대 후반 법률영어의 종주국(‘mother’ of legal English)으로 불리는 영국도 신규 제·개정 법령에서 ‘shall’을 폐기한 상태이다. 영연방 국가들에 비해 법률문서에서 ‘shall’의 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여 온 미국의 경우도 2010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Plain Writing Act of 2010’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에서 ‘알기 쉬운 언어’의 사용 원칙이 연방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연방 공문서에서 ‘shall’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아직 문구변경에 대해 권한이 제한적인 법령과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어 현재까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인식된 정책 등에 관한 문서의 경우 본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기는 하지만(가정준 2013: 18), 영미법 국가들의 ‘shall’ 폐기 경향을 고려할 때 미국 또한 가까운 미래에 제정법에서 ‘shall’을 전면 폐기하거나 한정하여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법령의 영어 번역의 경우, 의무 부과는 물론이고 허가의 발화수반행위와 목적, 정의 규정을 제외한 모든 구성 규칙(constitutive rule)¹의 영문 번역에서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shall’을 사용하고 있다. 법령 영역에서 현재와 같은 전면적인 ‘shall’의 사용은 정·오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령과의 텍스트

¹ 수행동사 또는 비명시적 수행동사로 기능하는 서법조동사를 포함하지 않은 진술문도 규제행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법문의 표현이나 용어를 설명 또는 정의하거나 해당 법(또는 그 일부)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을 구성규칙이라 한다. 구성규칙의 예로는 ‘means’, ‘applies’, ‘includes’, ‘excludes’와 같은 수행동사가 아닌 어휘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대표적인데, 서법조동사 ‘shall’을 사용한 미래 지시문 또한 구성규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Trosborg 1994: 313; Kurzon 1986: 23).

일치성(textual fit)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법령 발화수반행위의 영문 번역어로 사용된 수행표지 ‘shall’의 사용 양상을 대표적인 ‘shall’ 폐기국인 영국 법령의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번역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도래할 ‘shall’ 폐기 시대를 대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100만 단어 규모의 한국 법령 번역문 코퍼스(Translated Korean Statute Corpus, TKSC)와 동일 규모의 영국 법령문 코퍼스(British Statute Corpus, BSC)의 비교, 즉 번역문-비번역문 간 코퍼스 비교 방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대상 코퍼스는 향후 진행될 박사 논문을 위한 연구 문제 탐색 및 본 코퍼스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편찬 및 분석되었음을 밝혀둔다.

2. 선행 연구

2.1. 법령문에서 ‘shall’ 사용의 문제

법령문의 발화수반력은 크게 (1) ‘may’를 통해 권리, 특권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부여어(facultative language), (2) ‘shall’을 통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어(imperative language), (3) ‘shall not’ 같은 법적 수행표지를 통해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금지어(prohibitive language)로 구분된다(Bowers 1989: 30-31). 즉, 영미법에서 ‘shall’, ‘may’, ‘shall not’은 주요 법적 수행표지로서, 이들이 포함된 문장은 허용(may), 명령(shall), 금지(shall not)의 발화수반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비롯한 모든 법률 문서에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핵심어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간주되는 ‘shall’의 경우, 사람 행위자에 대한 의무 부과 화행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적 느낌(flavor)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됨으로써 정확한 의미를 고정시키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Williams 2006: 240). 즉, 현대의 법률 문서에 사용되는 ‘shall’은 선언된 의무(declared obligation)라는 공시를 획득하여 보증서, 면책조항 등과 같이 특정 권위를 갖지 않는 진술문에서도 수권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의무 부과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스타일 표지인 토템의 일종으로 법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Bowers 1989: 80, 294; Tiersma 1999: 207).

이렇게 현대의 법률 문서에서 'shall'이 일종의 토렘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해당 발화가 의도하고 있는 발화수반력을 적절하게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1970년대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대의 법률 텍스트에서 'shall'이 갖는 의미는 크게 1)상태의 기술, 2)의무의 부과, 3)미래 행위의 기술로 나뉘볼 수 있다(Goga-Vigaru 2012: 752). 대표적인 법언어학자이자 『Black's Law Dictionary』의 저자인 Garner(2011: 952)는 실제 법률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shall'의 의미가 무려 8개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shall'이 무분별하게 남용됨으로써 해당 텍스트에서 의도된 발화수반력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의무 부과와 강도를 해석하기 위해 사법권별로 각기 다른 맥락과 언어 외적 보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 문서에서 'shall'의 의미를 하나로 한정하거나 아예 폐기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shall'의 의미를 하나로 한정하여 문장의 주어가 유정물일 경우의 의무 부과('has a duty to')에만 이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American Rule'로 불리며, 법 문서에서 'shall'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주장은 'ABC Rule'로 지칭된다(Garner 2011: 952-3).

미국의 일부 법률가들이 제안한 'American Rule'에 따르면 문장의 주어가 비유정물인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shall' 대신 'is required to'의 의미를 갖는 'must'를 사용해야 한다. 즉, 'notice shall be sent by the party'와 같은 문장에서 'shall'은 'must'로 대체되어야 한다. 'shall not'의 경우에도 주어가 비유정물인 경우에는 'has a duty not to'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must not'이나 'may not'으로 바꾸어야 한다. 반면 1980년대 호주, 영국, 캐나다 법률가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하여 각국의 앞 글자를 따서 'ABC Rule'이라 명명된 규칙에 따르면, 법률가들에게 'shall'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법 문서에서 'shall'을 전면 폐기하고 'must', 'may', 'will', 'is entitled to'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계약이나 제정법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데는 'must'를, 단순한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데는 'will'을, 사실이나 법적 결과, 합의와 같은 그 외의 인식 의미에는 직설법 현재를 사용하자는 주장이다(표 1 참조).

'ABC Rule'에서는 주어의 유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요구된 행위에 'must'를 사용하므로 'American Rule'보다 해결이 훨씬 간단하다고 평가된다. Garner(ibid. 953) 역시 수 시간의 교육을 거친다 하더라도 법률가들이 'shall'의 정확한 용법을 숙지할 만큼

표 1. American Rule과 ABC Rule 요약표(Garner 2011: 954-5)

American Rule		ABC Rule (Preferred)	
shall	has a duty to	must	is required to
must	is required to [used for all requirements that are not duties imposed on the subject of the clause]	must not	is required not to; is disallowed from; is not permitted to
may not	is not permitted to; is disallowed from	may	has discretion to; is permitted to
must not	is required not to; is disallowed from; is not permitted to	may not	is not permitted to; is disallowed from
may	has discretion to; is permitted to	is entitled to	has a right to
is entitled to	has a right to	will	[one of the following:] a. expresses a future contingency b. in an adhesion contract, expresses one's own client's obligations; c. where the relationship is a delicate one, expresses both parties obligations
will	(expresses a future contingency)	should	denotes a directory provision
should	(denotes a directory provision)		

의 의미적 예민성(semantic acuity)을 갖추고 'shall'을 하나의 의미에만 일관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American Rule'보다는 'ABC Rule'을 지지한다. 'ABC Rule'은 이미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의 법제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1980년대 호주를 시작으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를 비롯해 최근 영국의 법령 텍스트에서는 'shall'이 이미 완전히 지취를 감추었거나 급격하게 사용이 감소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shall'이 규범적 법률 텍스트에서 거

의 사라졌으며(Williams 2005; 2007), 캐나다의 경우 제한적으로 'shall'이 없는(shall-free) 법령 텍스트가 구현되고 있다. 보통법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영국에서 최근 법령문에 'shall'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영국의 공식 법제지침인 『의회법제국 법제지침(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Drafting Guidance, OPCDG)』² 2014년 판에서 'shall' 관련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OPCDG의 경우 의무 부과와 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shall' 대신 'must'를 사용하되 보다 비명시적인 의무 부과에는 'is to'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법적 결과, 범위, 적용 등을 나타내는 구성규칙의 경우 직설법 현재동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OPC의 방침은 법령문에서 'shall'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의무 부과와 맥락에는 'must'를 사용하며(특정 문맥에 따라 'is to be'와 'it is the duty of'도 사용 가능하다), 적용, 결과, 범위, 개시에 관한 규정에서는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규정에는 'is amended as follows'를, 해당 법에 따른 폐지의 맥락에는 'is repealed'를 사용한다.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과 관련된 조항의 맥락에서는 'is to be'를 사용한다(또한 가능하다면 'shall not' 대신 'may not'을 사용한다). 'shall'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shall'을 사용한 텍스트를 새로운 법률에 삽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OPCDG 2014, 23-24).”

그러나 극도로 보수적인 법조계의 특성상 이러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의 주장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곳은 정책적인 강제, 즉 언어공학(language engineering)이 가능한 법제 분야이며, 계약서와 같은 사법 영역이나 여러 회원국의 다양한 법제 스타일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언어의 급격한 스타일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EU의 경우 아직까지 'shall'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Williams(2013b: 354)는 법 언어를 구성하는 법률 문서를 국제조약에서 지방정부의 규칙에 이르기까지 입법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와 계약서, 유언장 등 사인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구

분하고, 일반적으로 전자의 문서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후자의 문서들보다 많은 변화를 수용해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shall'을 폐기하려는 입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과 회행에는 여전히 'shall'이 사용되고 있다(Williams 2013a: 106). 따라서 번역가는 실제로 'shall'과 'must', 직설법 현재동사가 의무 부과 목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법조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해당 법제에 사용되는 지시화행의 표현 방식과 의무 부과와 강도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2.2. 법률 번역 연구에서 비교 코퍼스의 활용

번역학에서 비교 코퍼스 연구는 주로 번역 코퍼스(corpus of translations)와 TL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비번역 코퍼스로 구성된 '단일어 비교 코퍼스(monolingual comparable corpora)'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Baker(1995; 1996)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단일어 비교 코퍼스 연구는 번역 코퍼스가 비번역 코퍼스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즉 번역문의 고유한 특징인 번역보편소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결과물 연구는 '자연스러움(naturalness)'을 근본적인 품질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도착어 중심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코퍼스 기반 번역학(CBT)에서 병렬 코퍼스보다 비교 코퍼스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비교 코퍼스의 경우 병렬 코퍼스 편찬을 위해 요구되는 원문과 번역문의 정렬(alignment) 작업이 필요 없어 편찬 과정이 보다 손쉽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아울러, 번역학 내의 번역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지목되고 있다. 즉, 번역문을 원문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던 전통적인 번역학의 관점에서 번역문을 그 자체의 텍스트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원문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비교 코퍼스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Kenny 2005, Olohan 2004: 43에서 재인용).

법률 번역에서 코퍼스 기반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주창한 대표적인 학자인 Biel(2010: 3)의 경우에도 코퍼스 기반 법률 번역 연구방법을 다음 표 2와 같이 범주화하고, 비교 코퍼스를 활용한 법률 번역 연구를 다각도로 시도한 바 있다(e.g. 2014). 아래 표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법률 번역 연구에서 비교 코퍼스는 번역문이 비번역문과 비교해 텍스트

²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3866/guidancebook-20_March.pdf

표 2. (법률) 번역 목적의 코퍼스 분류

분석 종류	언어 내 (Intralingual)		언어 간 (Interlingual)	
언어 수	단일어(1개어)		2개어/다개어(2+개 언어)	
코퍼스 설계	(1) 단일어 1개 코퍼스	(2a) 비교 2+개 코퍼스	(2b) 비교 2+개 코퍼스	(3) 병렬 2+개 코퍼스
종류	전형적인 언어적 코퍼스	번역 지향 코퍼스	번역 지향 코퍼스	번역 코퍼스
언어 수	1개	1개	2개 이상	2개 이상
코퍼스 내용	비번역어 A	번역 대 비번역어 A	비번역어 A와 B	비번역어 A와 정렬된 번역어 B
조사 가능	기타 장르와 대비되는 법률 언어의 특징	비번역어와 대비되는 번역어의 특징	언어간 차이점과 공통점	번역 과정 (translation process)

일치성(textual fit)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효과적인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법률 텍스트 번역에서 'shall'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오의 차원이 아닌 동일 장르의 비번역 텍스트에서의 사용 관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문제에 해당 되기 때문에, 비교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방법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3. 예비 코퍼스 편찬

3.1. 코퍼스 편찬 및 분석 도구

연구 문제 탐색을 위한 본격적인 코퍼스 편찬에 앞서 설계상의 매개변수들을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 코퍼스를 먼저 편찬해 보았다. 예비 코퍼스는 100만 단어 규모의 한국 법령 번역문 코퍼스(TKSC)와 영국 법령문 코퍼스(BSC)로, 이를 바탕으로 워드 리스트를 도출한 뒤, 약 400만 단어 규모의 미국 법령문 코퍼스(ASC)를 참

조 코퍼스(reference corpus)로 하여 각각 키워드 분석 및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했다. 편찬된 TKSC와 BSC는 각각 한국 법령 번역 텍스트, 영국 법령 텍스트라는 모집단에 대한 100만 단어 규모의 표본 텍스트로, 공시적 비교를 위해 2014년 8월 현재 대한민국 영문 법령 사이트(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와 영국 국가 법령 제공 사이트(<http://www.legislation.gov.uk/>)에서 입수 가능한 최신 본을 대상으로 했다. 예비 코퍼스의 라인, 타입, 토큰 수 분석은 어휘 수준 및 구성 분석 프리웨어인 AntWordProfiler³를 이용했다. 아래 표 3은 100만 단어 규모로 편찬된 TKSC 예비 코퍼스의 대상 텍스트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100만 단어 규모 TKSC의 구성

분류	라인 수	타입 수	토큰 수
상법 제10696호	10,130	2,973	103,158
민법 제11728호(2013년)	7,464	2,872	73,196
개인정보보호법 제11690호(2013년)	1,379	1,336	14,574
형법 제11731호(2013년)	2,616	1,651	24,491
근로기준법 제11270호(2012년)	1,431	1,381	14,4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406호(2012년)	2,737	1,811	28,126
관세법 제11121호(2011년)	5,772	2,780	62,854
관세법 시행령 제23127호(2011년)	6,640	2,820	73,4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40호(2011년)	11,614	2,836	127,4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44호(2012년)	3,567	1,835	37,691
법인세법 제11873호(2013년)	5,658	1,806	60,6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년)	8,929	2,746	100,664

³ http://www.antlab.sci.waseda.ac.jp/antwordprofiler_index.html

조세특례제한법 제10901호(2011년)	15,374	3,051	165,6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039호(2011년)	14,081	3,538	156,111
합 계	97,392	33,436	1,042,375

BSC의 경우 2000년 이후의 보다 극명한 'shall' 폐기 현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대상 법령을 Williams(2013b, 358)에서와 같이 'UK Public General Acts'에서 'Original'을 선택하고, 기존 조항의 변경 내용을 규정한 개정(Amendment) 부분과 법령 말미의 별표(Schedules)는 제외하여 2000년대 이전의 법조문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BSC의 경우 번역문이 아닌 원문이므로 제·개정과 동시에 바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TKSC는 제·개정과 번역문 업로드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큰 편이라 영국과 달리 2013~2014년 신규 제정 법령만으로 100만 단어를 구성할 수 없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검색된 인기 법령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2011~2013년 개정 법령으로 구성된 TKSC의 경우도 실제 번역이 이루어진 시점은 주로 2012년 이후이기 때문에, BSC 텍스트 제작 시점과 큰 격차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아래 표 4는 100만 단어 규모로 편찬된 BSC 예비 코퍼스의 대상 텍스트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표 4. 100만 단어 규모 BSC의 구성

분류	라인 수	타입 수	토큰 수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11,408	2,559	89,178
Care Act 2014	11,315	1,925	65,443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17,611	2,214	94,769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2014	6,014	2,082	47,231
Energy Act 2013	11,338	2,490	87,211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19,875	2,251	99,716
Financial Act 2014	31,956	3,580	241,297

Financial Services Act 2013	9,413	2,240	72,490
Immigration Act 2014	9,451	1,854	46,367
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	7,909	1,622	42,925
Pensions Act 2014	5,513	1,435	42,540
Water Act 2014	12,269	1,900	93,087
합 계	154,072	26,152	1,022,254

상기의 TKSC와 BSC의 대상 법령 텍스트들은 모두 PDF 포맷으로 다운받은 뒤 Notepad ++6.6.7로 옮겨 기본적인 데이터 편집(data cleansing)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편집은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텍스트 외의 다른 표기 자질들이 코퍼스에 통합되지 않도록 코퍼스를 청소하는 것으로, 원시 데이터(raw data)에서 정규식(regular expressions) 등을 사용해 필요 없는 공백과 부호, 빈 줄 등을 제거하는 처리 절차를 말한다. 본 예비 코퍼스 편찬 과정에서는 일단 Notepad ++6.6.7의 공백과 빈 줄 제거 기능을 이용해 기본적인 편집은 실시하였으나, 특수 기호, 조항 표기와 조 제목, 'Amended by~', 'Newly Inserted by~' 등으로 시작하는 개정 표기는 삭제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authentic data)를 그대로 탑재하였으며, 별도의 레마 처리(lemmatization)는 실시하지 않았다⁴. 기본적인 편집을 마친 분석 코퍼스는 14개의 텍스트 파일로 구성된 TKSC와 12개의 텍스트 파일로 구성된 BSC로, 각각 Unicode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워드스미스 툴스(WordSmith Tools 6.0)에 탑재하였다. 본 예비 코퍼스 편찬 및 분석에서는 먼저 TKSC와 BSC에서 워드 리스트를 도출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핵심적인 수행표지로 지목된 'shall'과 'must' 등이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는 빈도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ASC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법전(U.S.C) 텍스트 파일을 참조 코퍼스로 하여 TKSC와 BSC의 키워드 리스트를 각각 도출

⁴ 레마 처리는 어휘 관련 연구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어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작업으로(고광운 2009, 14) 소미야 레마 목록(Someya lemma list)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실시할 수 있지만, 본 예비 코퍼스의 편찬 목적상 레마 처리를 거칠 경우 is, am, are 등 be 동사의 변이형이 모두 어휘항목 'be'에 수렴되기 때문에 다양한 서법조동사의 사용 힌트를 제공해 줄 'be'의 사용 빈도를 오히려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

해 봄으로써, ASC와 비교해 TKSC와 BSC에서 이러한 수행표지들이 대표성을 갖는 키워드로 도출되는 지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방향성과 유의미성을 가늠해 보았다.

3.2. 분석 결과

3.2.1. 워드 리스트 분석

코퍼스 언어학의 가장 보편적인 적용례 가운데 하나인 워드 리스트는 목표 텍스트에 사용된 모든 단어를 빈도와 함께 정리한 것으로, 텍스트의 어휘적 구성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키워드 분석을 위한 입력 어휘목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래 표 5는 예비 코퍼스인 TKSC와 BSC에서 각각 워드 리스트를 도출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나란히 배열한 것인데, 수행표지의 사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었다.

표 5. TKSC와 BSC의 워드 리스트 비교 결과(1-50위)

N	TKSC wordlist				BSC wordlist			
	Word	Freq.	%	Texts	Word	Freq.	%	Texts
1	#	98418	8.64	14	#	102892	9.15	12
2	THE	91959	8.07	14	THE	76192	6.77	12
3	OF	64165	5.63	14	OF	48522	4.31	12
4	TO	26304	2.31	14	A	38755	3.45	12
5	A	22043	1.93	14	TO	34835	3.10	12
6	IN	20633	1.81	14	IN	33730	3.00	12
7	ARTICLE	19910	1.75	14	OR	22131	1.97	12
8	AND	19639	1.72	14	AND	19743	1.76	12
9	OR	17002	1.49	14	IS	16808	1.49	12
10	BY	16782	1.47	14	SECTION	16653	1.48	12
11	SHALL	16509	1.45	14	FOR	16241	1.44	12
12	ACT	14446	1.27	14	B	11546	1.03	12
13	FOR	13620	1.20	14	UNDER	11067	0.98	12

14	UNDER	9887	0.87	14	BY	10761	0.96	12
15	BE	9632	0.85	14	ACT	10198	0.91	12
16	NO	8903	0.78	14	THAT	10172	0.90	12
17	TAX	8848	0.78	11	AS	9786	0.87	12
18	DECREE	8840	0.78	14	SUBSECTION	9489	0.84	12
19	PRESIDENTIAL	7527	0.66	13	BE	8733	0.78	12
20	BUSINESS	7324	0.64	14	AN	7983	0.71	12
21	ON	7195	0.63	14	PARAGRAPH	7465	0.66	12
22	AS	7134	0.63	14	C	7353	0.65	12
23	IS	7028	0.62	14	PERSON	7106	0.63	12
24	AN	6064	0.53	14	ANY	6727	0.60	12
25	AMOUNT	5856	0.51	13	THIS	6698	0.60	12
26	ANY	5721	0.50	14	MAY	6485	0.58	12
27	THIS	5562	0.49	14	PART	6193	0.55	12
28	THAT	5551	0.49	14	WHICH	6062	0.54	12
29	AMENDED	5398	0.47	14	ON	5824	0.52	12
30	WITH	5391	0.47	14	WITH	5806	0.52	12
31	INVESTMENT	5369	0.47	10	NOT	5253	0.47	12
32	WHICH	5322	0.47	14	IF	4758	0.42	12
33	FROM	5291	0.46	14	IT	4644	0.41	12
34	SUCH	5222	0.46	14	SCHEDULE	4629	0.41	12
35	WHERE	5172	0.45	14	S	4074	0.36	12
36	PARAGRAPH	4879	0.43	14	PROVISION	4037	0.36	12
37	ETC	4861	0.43	14	AUTHORITY	3946	0.35	12
38	NOT	4523	0.40	14	AFTER	3899	0.35	12
39	PROVISIONS	4492	0.39	14	MADE	3897	0.35	12
40	PRESCRIBED	4484	0.39	14	HAS	3831	0.34	12
41	APPLY	4439	0.39	14	ORDER	3721	0.33	12
42	PERSON	3890	0.34	14	ARE	3439	0.31	12
43	DATE	3799	0.33	14	MUST	3358	0.30	12
44	MAY	3560	0.31	14	SUBSTITUTE	3307	0.29	11
45	OTHER	3440	0.30	14	RELATION	3289	0.29	12
46	CASES	3437	0.30	14	STATE	3194	0.28	12
47	INCOME	3404	0.30	8	RELEVANT	3163	0.28	12
48	HAS	3377	0.30	14	PERIOD	3036	0.27	12

49	CORPORATION	3294	0.29	13	REGULATIONS	2977	0.26	12
50	WHO	3251	0.29	14	OTHER	2819	0.25	12

우선 모든 종류의 영어 코퍼스에서 최고 빈도 어휘로 추출되는 기능어인 'the', 'of', 'a' 등과 법령문에서 조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Article', 'Section' 등의 내용어를 제외하고, TKSC에서는 'shall'이 11위(1.45%)의 고빈도 어휘로 추출되고 있는 반면, BSC에서는 예상대로 50위까지의 고빈도 어휘 가운데 'shall'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선행 연구에서 'shall'의 대체 표현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던 'must'의 경우 TKSC에서는 50위까지의 고빈도 어휘에 등장하지 않은 반면 BSC에서는 43위(0.30%)로 나타났고, 26위의 'may'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서법조동사를 찾을 수 없어, 'shall'의 대체표현으로 'must' 외에 Williams(2013a; 2013b)에서 비약적인 사용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직설법 현재동사나 'is(are) to'의 사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TKSC에서는 'is'가 23위에, 'has'가 48위의 빈도를 보인 반면, BSC에서는 'is'가 9위, 'has'가 40위, 'are'가 42위로 나타나는 등 TKSC보다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어 영국 법령에서 'shall' 폐기와 그 대체 표현으로서의 직설법 현재동사 또는 'is(are) to'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물론 직설법 현재 동사 'is'는 TKSC에서도 23위(0.62%)로 나타나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대체로 종속절에 사용된 경우로 짐작되며, BSC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빈도수 차이가 거의 10,000건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것은 BSC에서 'is'가 종속절 외에 주절에서 'shall'의 대체표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키워드 분석

코퍼스 언어학에서 키워드란 참조 코퍼스와 비교해 대상 텍스트 묶음에서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항목을 말하는데, 빈도수가 높을 뿐 아니라 로그-라이클리후드(log-likelihood)나 카이-스퀘어(chi-squared) 테스트를 통해 분석 코퍼스에서 만들어진 워드 리스트와 참조 코퍼스에서 만들어진 워드 리스트를 비교하여 해당 텍스트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는 단어들을 말한다(권혁승&정채관 2012: 121). 키워드는 목표 텍스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의 내용 분석은 물론 언어적 성격과 문체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도 대단

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법언어학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 매우 큰 응용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광윤 2009: 17; Scott 2010). 본 예비 코퍼스에서는 3,470,048단어의 USC Title 26과 468,395단어의 USC Title 31을 참조 코퍼스(reference corpus)로 하여 TKSC와 BSC의 키워드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즉, 아래 표 6에서 키워드로 도출된 어휘들은 USC에 비해 목표 텍스트에서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들을 의미한다.

표 6. USC Title 26, 31을 참조 코퍼스로 비교한 TKSC의 키워드 리스트

N	Key word	Freq.	%	Texts	RC. Freq.	RC. %	Keyness	P
1	THE	91959	8.07	14	224040	4.88	16254.47	0.00
2	OF	64165	5.63	14	217684	4.74	1490.89	0.00
3	ARTICLE	19910	1.75	14	401		60823.90	0.00
4	BY	16782	1.47	14	51321	1.12	926.13	0.00
5	SHALL	16509	1.45	14	39420	0.86	2973.03	0.00
6	ACT	14446	1.27	14	12953	0.28	14593.45	0.00
7	BE	9632	0.85	14	32322	0.70	241.11	0.00
8	NO	8903	0.78	14	3758	0.08	15069.15	0.00
9	TAX	8848	0.78	11	15069	0.33	3761.89	0.00
10	DECREE	8840	0.78	14	76		27766.51	0.00
11	PRESIDENTIAL	7527	0.66	13	137		23038.64	0.00
12	BUSINESS	7324	0.64	14	3916	0.09	10889.84	0.00
13	ON	7195	0.63	14	20450	0.45	613.42	0.00
14	AN	6064	0.53	14	19743	0.43	203.16	0.00
15	AMOUNT	5856	0.51	13	13674	0.30	1128.61	0.00
16	THAT	5551	0.49	14	16631	0.36	347.81	0.00
17	AMENDED	5398	0.47	14	6186	0.13	4184.60	0.00
18	INVESTMENT	5369	0.47	10	2227	0.05	9155.33	0.00
19	FROM	5291	0.46	14	9551	0.21	1996.78	0.00
20	WHERE	5172	0.45	14	1420	0.03	10482.51	0.00

21	PARAGRAPH	4879	0.43	14	12654	0.28	638.49	0.00
22	ETC	4861	0.43	14	822	0.02	11383.47	0.00
23	PROVISIONS	4492	0.39	14	8441	0.18	1553.34	0.00
24	PRESCRIBED	4484	0.39	14	2191	0.05	7016.60	0.00
25	APPLY	4439	0.39	14	11560	0.25	570.92	0.00
26	PERSON	3890	0.34	14	6346	0.14	1788.08	0.00
27	MAY	3560	0.31	14	9275	0.20	456.75	0.00

TKSC에서 1위의 키워드로 'the'가 추출되었다는 것은 번역문인 TKSC가 영어 원문인 USC에 비해 명사 혹은 명사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Baker(1996)가 지적한 번역보편소의 특징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where', 'etc.' 등도 상위 키워드로 추출되고 있어, 한국의 법령 번역문에서 이러한 어휘들이 미국 법령문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점도 흥미로웠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직 법령문에서 'shall'을 폐기하지 않은 미국의 USC를 참조 코퍼스로 한 경우에도 서법조동사 'shall'이 5위의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법령과 비교할 때도 한국의 법령 번역 텍스트에서 'shall'이 과도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한국 법령 번역문에서 'shall'이 미국 법령문과 텍스트 일치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BSC에서 'must'가 5위의 상위 키워드로 도출된 것은 'shall'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USC를 참조 코퍼스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표 7 참조), TKSC에서 'shall'이 이 정도 상위 키워드로 도출된 것은 예상 외의 결과로 TKSC와 ASC의 경우도 콘코던스를 통해 'shall'의 사용 양상을 면밀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TKSC와 BSC의 키워드 리스트 비교에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사실은 BSC에서 상위 키워드로 잡히고 있지 않은 'No'가 TKSC에서는 8위의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법령 번역 텍스트에서 'SUBJECT shall not~'보다 'No SUBJECT shall~'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e.g. Daigneault 2009, 22-23)에서 'shall' 사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류로 지적된 "No SUBJECT shall~"의 사용이 ASC에 비해 TKSC에서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

표 7. USC Title 26, 31을 참조 코퍼스로 비교한 BSC의 키워드 리스트

N	Key word	Freq.	%	Texts	RC. Freq.	RC. %	Keyness	P
1	SCHEDULE	4629	0.41	12	216		13392.45	0.00
2	SUBSTITUTE	3307	0.29	11	61		10175.17	0.00
3	RELATION	3289	0.29	12	96		9868.83	0.00
4	RELEVANT	3163	0.28	12	174		8999.36	0.00
5	MUST	3358	0.30	12	400		8551.71	0.00
6	PART	6193	0.55	12	3983	0.09	8275.52	0.00
7	AUTHORITY	3946	0.35	12	1183	0.03	7816.50	0.00
8	IS	16808	1.49	12	27918	0.61	7736.99	0.00
9	INSERT	2367	0.21	11	1		7681.94	0.00
10	PERSON	7106	0.63	12	6346	0.14	7299.70	0.00
11	ACT	10198	0.91	12	12953	0.28	7101.16	0.00
12	ORDER	3721	0.33	12	1227	0.03	7100.27	0.00
13	SUB	2208	0.20	12	13		7027.72	0.00
14	IT	4644	0.41	12	2475	0.05	6996.49	0.00
15	CMA	2034	0.18	3	0		6615.42	0.00
16	SCHEME	1910	0.17	11	2		6181.38	0.00
17	THE	76192	6.77	12	224040	4.88	6116.39	0.00
18	IN	33730	3.00	12	83522	1.82	5680.16	0.00
19	WATER	2045	0.18	4	264		5125.12	0.00
20	S	4074	0.36	12	2896	0.06	5059.56	0.00
21	THAT	10172	0.90	12	16631	0.36	4800.69	0.00
22	PROVISION	4037	0.36	12	3048	0.07	4784.58	0.00
23	SOCIETY	1451	0.13	8	36		4395.38	0.00
24	WHERE	2722	0.24	12	1420	0.03	4149.87	0.00
25	OMIT	1217	0.11	11	7		3874.29	0.00
26	MAY	6485	0.58	12	9275	0.20	3809.40	0.00
27	NOTICE	2698	0.24	12	1684	0.04	3675.05	0.00

석된다. 또한 TKSC에서 상위 키워드로 잡히지 않은 직설법 현재동사 'is'가 BSC에서는 8위의 키워드로 나타나 영국의 법령문에서 'shall'의 대체표현으로 'is'와 'is to'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TKSC의 경우 BSC에서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지 않은 'be'가 7위의 키워드로 나타나 BSC에 비해 'shall be', 'shall not be', 'may be' 등 서법조동사를 사용한 수행문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3.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⁵란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빈출어구(frequent phrases)로, 반복되는 어구의 패턴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광운 2014). 예비 코퍼스로 편찬된 TKSC에서 수행표지 'shall'이 주로 어떠한 패턴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출어구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빈도를 5로 설정하고 클러스터 크기를 3~6개 단어로 설정한 뒤 'shall'의 클러스터를 산출하여 다음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shall'을 검색어로 한 클러스터 산출 결과 'shall apply~', 'shall be deemed', 'shall enter into' 등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고빈도 어휘다발로 발견되었다. 6위의 'The same shall'의 콘코던스 유형이 대부분 'The same shall apply~'이고, 7위의 'enter into force'의 콘코던스 유형이 'This Act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이며, 9위의 'mutatis mutandis to~'가 대부분 'This Act (Decre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실 1위부터 9위까지 TKSC의 'shall'과 관련된 상위권 어휘다발은 모두 의무 부과가 아닌 구성 규칙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법령 번역 텍스트가 아직 American Rule이나 ABC Rule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법령과 비교해 볼 때도 구성 규칙 등에 'shall'을 과다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⁵ 학자들에 따라 언어틀(collocational frameworks), 어휘다발(lexical bundles), 클러스터(clusters), 엔그램(n-grams), 어구연쇄(phraseology)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장세은&이성민 2012, 220), 본고에서는 워드스미스 툴스의 구성에 따라 클러스터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8. 'shall'을 검색어로 한 TKSC의 클러스터 분석 결과

N	Cluster	Freq.	Length	N	Cluster	Freq.	Length
1	SHALL APPLY MUTATIS	862	3	25	PRESCRIBED BY PRESIDENTIAL	433	4
2	APPLY MUTATIS MUTANDIS	851	3	26	2 SHALL APPLY	420	3
3	PROVISIONS OF ARTICLE	839	3	27	SHALL BE PRESCRIBED	420	3
4	SHALL BE DEEMED	818	3	28	SHALL APPLY TO	418	3
5	SHALL ENTER INTO	693	3	29	SHALL APPLY FROM	409	3
6	THE SAME SHALL	692	3	30	ACT SHALL BE	402	3
7	ENTER INTO FORCE	687	3	31	BE PRESCRIBED BY	398	3
8	SHALL NOT APPLY	670	3	32	SHALL APPLY BEGINNING	394	3
9	MUTATIS MUTANDIS TO	628	3	33	SHALL BE THE	392	3
10	OF THE ACT	618	3	34	APPLY FROM THE	391	3
11	SHALL APPLY STARTING	596	3	35	BE PUNISHED BY	391	3
12	APPLY STARTING WITH	585	3	36	FROM THE FIRST	350	3
13	INTO FORCE ON	567	3	37	MUTANDIS TO THE	348	3
14	STARTING WITH THE	553	3	38	IT SHALL BE	346	3
15	PARAGRAPH 1 SHALL	541	3	39	APPLY TO THE	344	3
16	THE ACT SHALL	527	3	40	APPLY BEGINNING FROM	327	3
17	SAME SHALL APPLY	523	3	41	THIS DECREE SHALL	325	3
18	WITH THE PORTION	516	3	42	BEGINNING FROM THE	320	3
19	THIS ACT SHALL	505	3	43	1 SHALL APPLY	311	3
20	BY PRESIDENTIAL DECREE	499	3	44	HE SHE SHALL	311	3

21	SHALL NOT BE	498	3	45	SHALL APPLY IN	309	3
22	ENFORCEMENT DATE THIS	460	3	46	BE DEEMED TO	305	3
23	1 ENFORCEMENT DATE	458	3	47	1 SHALL BE	299	3
24	SHALL BE PUNISHED	435	3	48	NOT APPLY TO	295	3

4. 결론

본고에서는 영어권 보통법 국가들의 'shall' 폐기 추세를 배경으로, 한국 법령 번역에서 허가의 발화수반행위와 목적, 정의규정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shall'의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박사논문을 위한 예비적 탐색을 위해 구축된 100만 단어 규모의 한국 법령 번역문과 영국 법령문 코퍼스를 비교한 결과, 한국 법령 번역문의 경우 'shall'이 고빈도 어휘로 추출된 반면, 영국 법령문에서는 50위까지의 고빈도 어휘 가운데 'shall'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영국법에서 'shall'이 폐기되었음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인 동시에, 한국 법령 번역문의 경우 대부분의 발화수반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shall'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약 400만 단어 규모의 미국 연방법전(U.S.C)을 참조 코퍼스로 하여 한국 법령 번역문과 영국 법령문을 비교한 경우에도, 'shall'은 한국 법령 번역문에서 5위의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반면, 영국 법령문에서는 'must'가 5위의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 영국법에서 'shall'의 대체어로 'must'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미국법과 비교할 때도 한국 법령 번역문에서 'shall'의 사용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한국 법령 번역문에서 구체적인 'shall'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클러스터 분석 결과 'shall'을 검색어로 한 상위 클러스터 대부분이 구성 규칙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의무 부과 화행에만 'shall'을 사용하고 구성 규칙에는 직설법 현재동사를 주로 사용하는 영미법의 관행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법령문의 영어 번역에 사용된 'shall'의 양상과 아직 'shall'이 잔존하고 있는 미국 법령문의 양상의 구체적인 차이와, 'shall'을 폐기한 영국 법령문에서 'shall'의 대체표현의 사용 양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참고 문헌

- Baker, M.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arget* 7(2): 223-243.
- _____.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 L.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in Honour of Juan C. Sage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5-186.
- Biel, L. (2009). Corpus-based studies of legal language for translation purposes: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potential. In *Reconceptualizing LSP. The XVII European LSP Symposium Proceedings*.
- _____. (2014). *Lost in the Eurofog. The Textual Fit of Translated Law*. Frankfurt am Main/New York: Peter Lang Edition.
- Bowers, F. (1989). *Linguistic Aspects of Legislative Expressio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Daigneault, E. (2009). *Draf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Legal English* (2nd edn.), Wien: Manz.
- Garner, B. (2011). *Garner's Dictionary of Legal Usage* (3rd edn.).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ga-Vigaru, R. (2012). A Corpus-based Analysis of Deontic and Epistemic Values of the Modal *Shall* in Legal Texts. *Contemporary Readings in Law and Social Justice* 2: 752-763.
- Kurzson, D. (1986). *It is Hereby Performed...: Explorations in Legal Speech Acts*. Amsterdam: John Benjamins.
- Olohan, M.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Trosborg, A. (1994). Acts in contracts: Some guidelines for translation. In Poehchacker, F. & Snell-Hornby, M.,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09-318.
- Williams, C. (2005). Vagueness in Legal Texts: Is there a Future for *Shall*? In Bhatia, V. K. (ed.), *Vagueness in Normative Texts*. Bern/New York: Peter Lang, 201-226.
- _____. (2006). Fuzziness in Legal English: What Shall we Do with Shall? In Wagner, A. & S. Cacciaguidi-Fahy (eds.), *Legal Language and the Search for clarity: practice and tools*. Vol. 37. Peter Lang, 237-263.
- _____. (2009). Legal English and the Modal Revolution. In Salkie, R., Busuttil, P. & J. van der Auwera (eds.), *Modality in English: theory and description*. Berlin/New York: M. de Gruyter, 199-210.
- _____. (2013a). Is legal English "going European"? The case of the simple present,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58(1): 105-126.
- _____. (2013b). Changes in the verb phrase in legislative language in English In Arts, B., Close, J. and Wallis, S. (eds.), *The Verb Phrase in English: Investigating Recent Language Change with Corpora*.

-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53-371.
- Ka, J. (2013). The Study on 'Plain Writing Act' in the Point of View from Procedural Due Process.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24 (3): 1-26.
- Goh, K. (2009). Corpus Tools to Choose from and their Merits and Demerits: WordSmith Tools 4.0 vs. MonoConc Pro 2.2.,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7: 1-22.
- _____. (2014). Research Trend, Analysis & Statistics. 2014 Winter Corpus English Linguistics Workshop Course Materials.
- Kwon, H. and Chung, C. (2012). *Introduction to Corpus Linguistics*. Seoul: Hankukmunhwasa.
- Jhang, S. and Lee, S. (2012). Key Clusters Analyses of Lexical Bundles Used i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4): 219-239.

This paper was received on 23 March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on 2 April 2015; and accepted on 8 April 2015.

Author's email address

jeongjuy@naver.com

About the author

Jeongju Yoo completed her doctoral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working as a freelance legal translator a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he also lectures at Ewha's GSTI and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